

# 86 시멘트 決算書

姜 鎮 熙

〈韓國洋灰工業協會企劃部次長〉

## 1. 序

3 低의 목청이 유별나게 드높았던 한해였다. 油價의 引下, 國際金利의 下落, 그리고 恩貨에 대한 달러貨의 弱勢로 일컬어지는 이른바 3 低現象은 우리 經濟에 커다란 波紋을 던져주었다.

그 現象이 우리 경제에 미친 영향은 有·不利의 兩面性을 지니고 있긴 하나 하나의 큰 好材로 作用했음이 틀림없다.

그와 같은 3 低의 好機를 이용한 經濟政策과 企業의 積極적 對應 및 世界經濟局面의 好轉으로 國內景氣가 활기를 띠어 設備投資가 急伸張하였고 輸出部門도 활발하여 전반적인 景氣의 밝은 面이 있었던 反面, 美國의 市場開放壓力으로 인한 輸入開放의 아픔을 감내해야 하는 어려움도 있었던 한해이기도 했다.

한편 工業發展法이 지난 7월 1일자로 制定, 發效됨에 따라 洋灰工業協會의 性格이 다소 變化를 가져왔다. 즉 1963년 民法에 의해 設立된 社團法人인 同協會가 금년 9월 23일자로 工業發展法에 設립 근거를 둔 特殊法人으로 바뀌어 재출발한 셈이다.

工業發展法의 要諦는 公業의 合理化 促進과 工業技術 및 生産性 向上으로서 同法의 施行으로 당장 시멘트 業界에 變化를 가져오지는 않았으나 向後 시멘트公業의 育成, 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한편 지난해 말 輸送共同行爲의 登錄을 延長, 계속 실시하여 限定된 輸送力에도 불구하고 20,000 千톤을 훨씬 상회하는 內需物量을 효율적으로 처리함으로써 輸送問題를 完滿히 해결하였으며 物物交換과 逆輸送 防止로 輸送費用을 절감함으로써 産業合理化에도 크게 이바지하였다.

그러나 業界는 輸送共同行爲가 構造的인 輸送問題의 解決策이 될 수 없다는 判斷下에 장기적으로 流通中繼基地를 擴充하여 輸送問題를 근본적으로 해결코자 하고 있다. 其의 一環으로 全國 最大 需要地인 京仁地域의 供給 원활을 위하여 南部洋灰基地를 完工하였다.

그러나 同基地의 完成으로 首都圈地域으로 수송되던 陸送物量과 날로 증가하는 벌크 시멘트를 동시에 收容하려던 業界의 기대가 일단은 무너져 버렸다.

그것은 이 基地에 勞組문제가 제기되는데 따른 현상인데 基地의 入住업체들과 관련 勞組간의 의견이 접근되어 조만간 正常操業이 가능해지기를 바란다.

한편 1년여 전부터 간헐적으로 제기되던 美國 業者들에 의한 韓國 시멘트에 대한 덤핑 提訴가 지난 11월 3일 정식으로 있게 됨에 따라 提訴 자체로 인한 輸出 減少는 물론 만에 하나 라도 덤핑이 確定된다면 내년 輸出에 큰 타격이 예상된다.

우리의 시멘트 輸出이 美國 수요의 3% 정도

밖에 안되고 그 지역이 西部地域으로서 美國시멘트 産業에 被害를 주기는 커녕 오히려 美國工場이 供給하기 어려운 지역에 輸出하여 美國需要에 補完的 기능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덩핑제조를 한 것이 어처구니 없는 일이라는 하나 일단 提訴가 된 것이니 만큼 이 時點에서는 無害判定을 받을 수 있도록 多角的으로 對處해야 할 것이다.

한편 雙龍이 輸出促進을 위해 日本 沿岸에 輸出前進基地(사일로)를 建設하고 現地 法人을 設立하여 對日輸出을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로 特記할 만하다.

이제 지난 일년간의 시멘트 需給에 관해 살펴 보고자 한다.

## 2. 需 給

1986 년도의 시멘트 需給은 需要의 上昇局面과 공급과잉이 겹쳐 喜悲가 엇갈리는 面을 보였

다. 금년의 國內 需要는 7%의 증가를 나타냈다. 年初 86 아시안게임과 88 올림픽의 兩大行事로 인한 超過需要를 기대하여 당시의 경제상황으로는 좀 무리하다 할 7%의 伸張을 計劃했던 것이 公교롭게도 잘 맞아 떨어진 결과를 가져왔다.

그러나 금년의 內需計劃과 實績이 일치하진 않았으나 그 誘發要因에 있어서는 差異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즉 當初 7%의 증가를 예측한 것은 86 經濟運用基本方向이 成長側面이 강조된點, 84~85 년의 內需微騰에 대한 反騰效果 및 86·88 兩大行事에 따른 環境造成事業의 推進 등을 고려한 것이었다. 그러나 內需의 伸張은 이들 효과에 의한 面도 컸겠으나 3低의 영향으로 인한 景氣好轉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풀이하고 싶다. 그와 같은 前提에서 보면 오히려 伸張勢가 弱했던 것으로 볼 수도 있겠다.

한편 輸出은 크게 늘어 약 50%의 증가를 보였다. 價格은 여겨졌던 供給過剩 狀態에서 4,000 천톤 이상의 物量을 海外로 내보냈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본다.

한편 需要가 그러했던 것과는 달리 供給面은

매우 어두운 실정이었다.

86 년도의 供給能力은 85 년도의 寄與能力 25,200 천톤에 비해 18.5%가 증가한 29,863 천톤으로 무려 4,663 천톤이나 증대되었다. 이같은 공급능력의 급격한 팽창으로 크링카 稼動率이 76%에 불과했으며 物量으로 7,000 천톤 이상이 남아도는 현상을 보였다. 또한 이같은 공급과잉현상은 금년 뿐만 아니라 앞으로 수년간 계속될 것으로 보며 여간 걱정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 1) 生 産

86 년도의 生産面을 보면 크링카의 경우 22,683 천톤으로 前年對比 110.3%, 시멘트는 23,314 천톤으로 前年對比 113.7%를 보여 共히 10% 이상의 증가를 나타냈다. 이는 內需와 輸出의 總需要가 前年對比 12.6% 증가된 것을 그대로 反映한 결과이며 生産會社가 在庫累增으로 인한 資金壓迫을 줄이기 위해 需要에 맞추어 生産活動을 進行한 결과이기도 하다.

한편 稼動率을 보면 年平均 76.0%를 시현하여 前年の 81.6%보다 5.6% 포인트 감소했다.

또한 이는 84 년보다는 무려 11% 포인트, 지난 10年間의 平均稼動率 86.8%보다는 10.8% 포인트 떨어지는 實績으로서 主要原因은 施設規模가 大幅 增大된데 있다.

이를 分期別로 보면 1/4 분기 중 55.2%, 2/4 분기 84.4%, 3/4 분기 82.2% 및 4/4 분기 81.6%로서 1/4 분기의 稼動率이 현저히 낮은 바 이는 非需期를 이용한 많은 補修와 在庫累增에 의한 限界生産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稼動率을 會社別로 보면 高麗가 106.4%로 가장 높고 雙龍이 86.4%로 비교적 높은 水準이며 대부분의 會社들은 60%대에 머물고 있다. 稼動率이 높은 高麗는 地域의 販賣가 容易한데 起因한 것으로 보이며 雙龍은 輸出需要를 反映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每年 높은 稼動率을 나타내던 現代가 61.7%로 낮은 수준을 보인 것은 금년에 施設規模가 2배 이상 늘어났으나 販賣活動이 그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풀이함이 옳을 것이다.

## 2) 內 需

### (1) 需要部門別 實績

86년도 內需은 20,305천톤으로서 前年對比 7%의 증가를 보여 當初計劃과 일치하는 결과를 보였다.

이는 政府의 고용 및 수출증대를 위한 投資促進政策과 86·88 兩大行事로 인한 需要誘發外에 급격히 밀어 닦친 3低現象이 奏效한 것으로 풀이된다. 아마도 3低의 영향이 없었다면 7%의 증가는 크게 어긋났을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한편 이를 需要部門別로 살펴보면 民需은 前年對比 108.5%로 內需增加率을 상회하고 있는 반면 官需은 前年對比 98.8%로 前年水準을 약간 하회하고 있다.

또한 民官需의 構成比를 보면 民需 85.3%, 官需 14.7%로 85년도의 각각 84.1% 및 15.9%보다 그 폭이 더 벌어져 民需가 시멘트 需要를 완전히 主導할 뿐만 아니라 民需偏向이 더욱 深化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官需 比重이 82년까지는 20%를 상회하는 수준이었으며 83~85년간은 15~16%線에 머물렀으나 금년의 수준에서 보듯이 官需 比重은 점점 하락하여 10線까지 떨어질 날이 멀지 않았다.

이런 現象은 經濟規模가 擴大됨에 따라 政府가 主導하는 投資事業 比重이 낮아지고 經濟運用的 民間主導 등에 기인하는 것으로 본다.

한편 시멘트의 最大 需要部門은 建築部門이다. 建築部門에 소요된 시멘트를 당장 計量的으로 밝히기는 어려우나 建築許可實績이 시멘트 需要의 先行指標로서 重要的 의미를 지니는 관계로 이의 動向을 통해 금년 內需增加를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86년도의 建築許可 動向을 보면 1~9월까지 前年對比 117.6%로 상당히 증가했다. 이를 用途別로 볼때 住居用이 121.6%, 工業用이 125.2%, 文教社會用이 122.6%를 기록하여 商業用을 除外한 各部門이 고루 증가한 셈이다. 특히 上半期 實績을 보면 文教社會用이 前年對比 130.6%로 가장 높은 증가를 보인 바 이는 아시안계

임을 앞두고 環境造成事業이 활발히 이루어졌음을 가리키는 것이며 9월까지의 市道別 實績을 볼 때 서울지역이 전년대비 174.3%의 높은 伸張勢를 나타내어 이를 잘 뒷받침하고 있다고 보겠다.

### (2) 季節別 實績

시멘트는 特性上 季節別 需要의 起伏이 심하다. 늘 그러하듯이 86년도 月別 需要도 그 特性을 잘 나타내 1월, 2월 및 12월은 平均値를 밑도는 낮은 수준이었고 4~6월 및 9~10월 期間은 높은 수준이었다. 그 중에서도 5월과 10월은 月平均値 對比 134.3% 및 124.0%를 보여 매우 높았으며 8월이 例年과 달리 112.6%로 높은 수준을 보인 것은 아시안게임을 앞둔 막바지 공사가 활발한데 기인했다고 본다.

### (3) 벌크 시멘트 出荷比率

內需出荷中 벌크比重이 包裝品에 비해 점점 높아지고 있다.

벌크化率의 提高는 시멘트 輸送 및 流通上 매우 큰 의미를 지닌다. 즉 輸送效率의 增大, 保管·管理의 容易, 流通의 單純, 荷役費用과 包裝費用의 節減 및 消費者에 대한 서비스 強化 등의 많은 長點이 있다.

또한 이와 같은 長點으로 해서 시멘트 業界가 안고 있는 輸送上의 構造的 問題를 근본적으로 解決할 수 있기도 하다.

86년도의 벌크 出荷比率은 53.3%로서 크게 向上되었을 뿐만 아니라 처음으로 50%線을 넘게 됨에 따라 流通中心이 包裝品에서 벌크로 바뀌는 해가 되었다. 따라서 금년을 기점으로 앞으로 輸送, 流通 및 販賣에 이르기까지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이는 80년 21.3%, 81년 26.6%, 82년 32.3%, 83년 37.6%, 84년 43.4%, 85년 49.1%에 이은 實績으로서 괄목할 만한 기록이며 80년 이후 年平均 5.3%의 높은 伸張을 보인 것이다.

한편 현재 先進國의 벌크化率은 70%를 상회하고 있으며 日本의 경우 90%를 상회하고 있다. 우리의 경우 높은 증가에도 불구하고 아직

이들과는 큰 차이가 있으나 앞으로 4~5년 후인 90年代가 되면 先進國 수준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시멘트 業界가 적극 추진하고 있는 流通中繼基地 擴充으로 벌크化率 提高에 큰 보탬이 될 것으로 본다.

### 3. 輸 出

86년도의 輸出은 크링카와 시멘트를 합하여 出荷基準으로 4,383천톤을 시현하여 85년의 2,943천톤에 비해 48.9%의 증가를 보였다.

그러나 이는 81~83年 期間中 每年 5,000천톤을 상회하던 실적에 비해서는 아직도 크게 떨어지는 실적이며 急落했던 84~85년의 실적을 겨우 만회한 의미가 있을 뿐이다.

특히 금년의 實績이 一時的 現象에 기인한 것으로서 價格面은 고사하고 物量面에서도 87년 이후 계속될 추세가 아니라는데 큰 우려가 있는 것이다. 즉 86년의 純增實績을 市場別로 살펴보면 사우디아라비아가 약 700천톤, 日本이 약 500천톤, 홍콩 약 300천톤, 美國 약 100천톤 등인데 美國을 제외한 上記 3個國의 경우는 모두 恩貨의 評價切上和 업체의 적극적 마케팅에 의한 것으로 보고 싶다.

그러나 87년을 예상해 볼 때 사우디아라비아는 輸入物量의 축소로 우리의 輸出이 다소 줄어들 전망이며 美國市場은 현재 덤핑제소 중으로서 매우 불투명한 상황이다. 뿐만 아니라 방글라데시 및 싱가포르도 86년에 이어 감소할 것으로 본다. 이와 같이 우려되는 시장은 많은 반면 증가될 것으로 보이는 市場은 日本이 약간의 증가가 예상될 뿐 어디 하나 늘어날 市場이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87년도의 輸出은 금년보다 감소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86년도의 輸出實績을 市場別로 살펴보면 東南亞地域의 경우 日本과 홍콩이 前年보다 각각 473천톤 및 328천톤이 늘어난 759천톤 및 637천톤을 시현한 반면 방글라데시 및 싱가포르는 前年보다 각각 175천톤 및 58천톤 감소한 190천톤 및 442천톤의 實績을 보였으며 베트남에 70年代 中斷된 이후 처음으로 184천톤이 輸出된 것이 특기할 만하다.

### 86년도 시멘트需給 總括

(단위 : 천톤, %)

		85	86	對 比
供 給	移 越	687	713	103.8
	生 産	20,498	23,314	113.7
	計	21,185	24,027	113.4
需	內 需	18,976	20,305	107.0
	民需	15,957	17,320	108.5
	官需	3,019	2,985	98.8
要	(1,450)	(1,500)		
	輸 出	1,493	2,883	193.1
	計	20,469	23,188	113.3
在 庫		713	700	98.2

註 : 1) ( ) 內는 크링카 輸出

2) 86.12月分 推定算入

한편 中東地域의 경우 사우디아라비아는 업체의 적극적인 마케팅과 恩高가 뒷받침한 결과로 前年보다 741천톤이 늘어난 1,026천톤이었으며 바레인도 前年보다 72천톤이 준 121천톤을 수출했을 뿐이다. 한편 지난해 192천톤을 수출한 아랍에미리트 市場은 全無하다.

이처럼 우리나라 시멘트 輸出의 50%를 차지하던 中東市場은 대폭 축소되었고 既存의 東南亞 市場마저 점점 下落하는 狀況下에 이를 다소나마 만회하기 위해 新市場 開拓의 一環으로 美國 및 日本市場을 노크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美國市場은 이미 덤핑제소를 받고 있어 시작단계에서 시련을 맞게 되었으며 日本의 경우 現地에 前進 서비스 사일로 建設, 非關稅 打開 努力 등으로 다소 實效를 거두고 있으나 現地 生産會社들의 반발과 계약으로 大量 輸出을 실현하는데 어려운 문제들이 계속 뒤따를 것으로 본다. 한편 86년도 輸出實績을 品目別 構成面을 보면 변화를 가져왔다. 크링카는 85년의 49.3%에서 34.3%로, 포장시멘트는 17.7%에서 12.6%로 크게 준 반면 벌크는 33.0%에서 53.1%로 대폭 증가되었다.

이같은 현상은 크링카가 홍콩과 싱가포르에 일정 수준을 계속 輸出하고 있기 때문이며 포장시멘트는 輸出패턴의 변화로 거의 사라지고 벌크 去來가 중심이 되어가고 있기 때문이다.♣